

# 미주 한인 여대생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의 의미: 현상학적 접근\*

이선경<sup>1)</sup> · 송주은<sup>2)</sup> · Tiffany Kim<sup>3)</sup>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9년을 함께 출산율 0.92명으로 마감하면서 OECD국가와 G20국가에서 가장 낮은 함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1], 혼인건수 역시 2017년 26만 4천여 건에서 2019년 23만 9천여 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20~44세 미혼여성의 결혼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7.7%에 불과하였고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8.4%로 나타나[2] 차세대 부모가 될 미혼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출산이 대부분 미혼여성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3],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낮은 인식과 실제적인 혼인율의 감소는 낮은 출산율로 이어져 갈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Yim [4]은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한 한국사회의 산업 자본주의적 가족형태와 유교적 기반의 전통적 가족형태의 가치관이 혼재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경제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린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갈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가치관[5]과 여성에게 편중되는 출산 후 양육 부담[6], 그리고 취업절벽의 사회적 이슈

[7]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4].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도 40조 1906억원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8] 여전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최근 3차 저출산 정책이 국가 주도의 인구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9,10], 출산율 숫자에 매몰되어 단기해법에만 치중하였으며[9], 보편적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에만 집중된 대책과[11] 일-가정 병행을 위한 사회변화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 가족, 남성 등의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12] 등을 실패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주도의 재정지원에만 집중된 나머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을 도구화하고 정책 안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여성이 없는 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5,13].

이제 정부는 모성의 본질이 어머니됨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까지 포함함을 고려할 때, 모성을 외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과 어떠한 대가와 교환되는 노동력이 아님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입장이 반영된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정책에 담은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5]. 따라서 이제 3차 저출산 정책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성 개인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포함

**주요어 :** 미주, 한인 여대생, 결혼, 출산, 질적연구

\* 본 연구는 2018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해외연수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교수(<https://orcid.org/0000-0002-4614-3512>)

2) 아주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E-mail: [songje@ajou.ac.kr](mailto:songje@ajou.ac.kr)) (<https://orcid.org/0000-0003-4262-1895>)

3) Northeastern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Assistant Clinical Professor(<https://orcid.org/0000-0002-4900-1288>)

투고일: 2020년 11월 22일 수정일: 2020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3일

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미래 출산의 주체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그들의 언어의 의미를 탐색한 현상학적 연구[7]가 실시되었는데, 여대생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기존 남성중심적 결혼문화에 대한 저항’, ‘혼자살기도 버거운 삶’, ‘자아를 희생해야 하는 결혼’,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절벽인 우리나라의 현실 및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여성의 의무에 대한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이 문화적 다양한 맥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가치관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미국사회에 거주하는 한인 여대생들은 과연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라고 본다. 특별히 미국 거주 한인 여대생의 경우 한국적 가치관으로 가정에서 양육되는 한편, 미국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독특한 적응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주 한인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 의미가 우리나라 여대생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문화적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사회에 이주한 이민자의 경우 기존에 자신이 속한 문화와 새로 이주한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재적응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며, 다양한 유형의 문화적응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14]. 따라서 미주 한인 여대생의 경우도 한국과 미국이라는 양국의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재적응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이 결혼이나 출산의 의미로 반영되어 미국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에 재조명될 것이라 예측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개입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된 이유는 초창기부터 영국식 전통의 영향을 받아 출산과 육아는 사적인 영역을 치부하고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임여성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78로[16] 현재 우리나라의 대략 2배에 해당하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 출산 정책이 노동력 공급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민국가의 특성[15],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혼재하는 미국사회의 특징[15] 등의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미주 한인 여대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미형성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에서 대한민국 유교문화의 가족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으로 양육되어졌지만, 미국이라는 취업환경, 여성의 사회적 지위, 결혼문화, 양육지원제도 등의 사회, 경제, 정치적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 여대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결

혼과 출산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주 한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하에서 한국적 가치관과 언어를 가진 그들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미주 한인 여대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결혼과 출산의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미주 한인 여대생이 부여하는 결혼과 출산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는 미국 거주 중인 한인 여대생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실시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미국 보스톤의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에 다니는 한인대상의 연구참여 공고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조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민 1세대부모의 자녀인 여대생(이민 1.5세대) 중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직업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심층면접에 응할 수 있는 의지와 이중 언어를 구사하여 한국어 이해능력이 충분한 자였다. 지역적으로는 메사추세츠 주의 보스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도시의 특징상 유학생은 많으나 미국 이주자 가정이 드물고 그중에서도 여대생이라는 기준을 부합하는 참여자가 많지 않아 연구참여자의 표집을 위하여 같은 조건을 가진 친구나 지인을 소개받는 식의 눈팅이 표출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미국 거주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대상자,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운 여대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1.4세였고, 1명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나머지 4인은 학기 중에 가족과 떨어져 뉴욕, 보스

톤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전공은 생물학, 경영학, 일러스트, 간호학, PA (Physician Assistant)였다. 이들의 미국생활 기간은 평균 8.6년이었다. 참여자 중 2명은 시민권이 있었고, 2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1명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살 의지가 있는 참여자였다. 참여자 중 2명은 결혼에 긍정적이었고, 1명은 현재는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결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2명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1명은 현재 남자친구가 있고, 4명은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였다(Table 1).

### 자료 수집

연구자료 수집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심층면접을 통해 1:1로 진행하였다. 1차 면담 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심층면접 진행과 면접 소요 시간, 면담과정 녹음, 녹음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 면담 과정에서 면담의 종료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서면으로 동의를 득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와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협의한 후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연구실, 조용한 카페, 연구자의 집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 실시되었다. 면담은 최소 6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료분석 과정에서 의미가 모호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후 전화와 추가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개방형 질문은 ‘미주 한인 여대생으로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였다. 면담 시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와 경청을 하였고, 면담과정 중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중 모든 자료는 녹음이 되어서 제 3자에게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1회의 심층면담 후 20불을 제공하였으며, 심층면담 후 참여자가 원할 경우 간호학적, 발달적, 성적 측면의 상담을 제공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참여자 중심의 시각에 근거한 인간경험에 대한 연구로 지각과 판단의 모든 복합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경험되는 공통의 현상을 찾기 위해[17] 심층면접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Colaizzi [18]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의 6단계로 분석하였다.

- 첫째,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참여자의 기술(protocols)을 읽는다.
- 둘째,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와 문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 셋째, 의미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한다.
- 넷째,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 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도출한다.
-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 여섯째,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 [19]이 제시한 신빙성, 전이성, 신뢰성, 확증성에 근거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신빙성(credi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뷰 동안에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인터뷰 진행시에 참여자의 진술을 연구자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1인의 질적 연구 전문가이자 간호학 교수가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함으로써 연구의 민감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였고, 객관적, 과학적 분석 방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그들만의 주관적 실체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1차로 분석된 자료는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공동 연구자와 결과를 논의하며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분석된 연구결과는 참여자와 질적 연구 수행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 1인과 간호학 교수 1인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거쳤다. 전이성(transfer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거주 한인 여대생의 전공과 미국 거주기간 등을 다양하게 표집 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자로 부터의 질적자료 수집이 될 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

Participant	Age	Grade	Major	Years in American	Attitude toward marriage
A	22	3	Physician assistant	4	positive
B	21	2	Department of illustration	9	negative
C	22	2	Nursing	13	negative
D	21	2	Business administration	7	neutral
E	21	3	Biology	10	positive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들로 부터 연구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신뢰성(depend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audit)가 가능하도록 자료수집과 분석의 전 과정을 메모와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증성(confirm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문헌 고찰을 대상자의 자료수집과 주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여 문헌 고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진행의 모든 과정과 절차에 대해 S 대학의 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IRB No. SWCN-201711-HR-001)을 받았으며, 참여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 연구결과

### 범주, 주제모음과 주제

본 연구에서는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과 본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Colaizzi의 질적자료 분석방법을 통해 미주 한인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주 한인 여대생 5명에게 결혼과 출산의 의미에 대한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239개의 의미 있는 진술, 49개의 의미형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료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22개의 주제와 주제를 근거로 한 12개의 주제모음, 그리고 5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Table 2).

#### ● 범주 1: 자아성장으로서의 결혼

이 범주에서는 1가지의 주제모음이 포함되었는데, 참여자들은 미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부모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서로 돕는 과정에서 성숙된 것 같이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성장, 성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1)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결혼

가정은 사랑을 바탕으로 희생과 배려를 배우고 성숙되어 가는 장소이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즉 여성에게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희생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며 자신이 결혼을 통해 성숙되어 갈 것이라고 하였다.

##### ① 희생과 배려를 배우는 결혼(가정)

참여자들은 미국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가족을 통해 1

차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생활하면서 자신이 성숙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제가 가정에서 큰 딸로서 이제 좀 더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할 때 가정에서 삼남매가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동생들이 미워서 어찌고저찌고 해도 학교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픽업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솔직히 불편도 하고 귀찮기도 하긴 하는데 가족을 돌보는 일은 가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요(참여자 A).*

*사실 제가 결혼을 하면 확실히 성숙해질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나 애들을 대할 때나 확실히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안하고 엄청 성공한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애들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가족이 있어 엄마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참여자 A).*

##### ② 희생이 필요하지만 가치 있는 결혼/출산

참여자들은 자신들로 인해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결혼, 출산, 양육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족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도 결혼/ 출산을 해 보고 싶고,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결혼은 (자신이) 첫 번째(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스스로 자처해서 (결혼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많은 희생을 하셨지만, 저에게 후회하지 않고 만족한다고 하세요 만약 내가 진짜 엄마가 된다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뭘까? 이것을 connection을 지어서 그걸 맨날 엄마도 말씀하시고, 너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사실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해요(참여자 A).*

#### ● 범주 2: 인생의 거울, 부모님

부모님은 미래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삶과 배우자의 모습의 모델이 되고, 부모가 만들어 내는 결혼생활은 미래 자신의 결혼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부부가 화목한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는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면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부정적이 된다.

(1) 미래 자신의 부모상이 되는 부모님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삶으로 부터 같은 여성으로서 미래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을 형성하고 있었다.

① 엄마의 삶은 나의 미래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삶을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미래로 투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보면서 안쓰럽고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어머니와 같이 열심히 살면 결혼, 출산, 일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엄마가 되지 아빠가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저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처럼 노력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해요(참여자 D).

②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되는 아빠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나는 첫 남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에서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과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형성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려면 남자를 찾고 골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처음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아무래도 아빠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데 있어 뭔가 relation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A).

아빠는 되게 가정에 충실하시죠 애들한테는 되게 잘 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늘 저를

<Table 2> Themes, Theme clusters, and Categories

Theme (n=22)	Theme cluster (n=12)	Category (n=5)
① Marriage accompanied by self-sacrifice and concerns for other family members ② Marriage and birth that requires self-sacrifice but worth	(1) Marriage for a self -growth and maturity	1. Marriage as an opportunity for self-growth
① My future reflecting my mother's life ② My father as the criterion when I choose a spouse	(1) Parents who become an own parent image in the future	2. The mirror of life: parents
① Marriage reflecting my parents ② Self-doubt about everlasting love	(2) A view of marriage formed from parents' lives	
① Hope to live equally and independently after marriage ② Keeping distance from the patriarchal Korean culture	(1) A desire for an independant life (2) Burden for marriage requiring sacrifice	3. Oneself who cannot give up
① Marriage/birth accompanied by a woman's sacrifice ② Burden of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given to women after marriage/birth	(3) Marriage, not a must	
① Cohabitation which is easy to choose and preferred to marriage ② Marriage as one of my options	(4) Reasons to put a priority on job over marriage	
① Having the self-confidence to live a financially independent life ② Work as an important value of women's life	(1) Marriage as a way to feel emotional safety (2) Marriage as a way to guarantee social stability	4. A desire to live a stable life
① A shelter to have emotional support from marriage in a lonely immigrant life ① Citizenship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a stable marriage	(1) Fear of two faces of American culture (2) Couple-focused family friendly attitudes in America Culture	5. Ambivalence on the culture of two countries
① Fear of American culture that sexually opens and is easy to get divorced ② The stereotype of patriarchal gender role that exists everywhere	(3) The ideal image of a spouse formed through a blending of the two cultures	
① American marriage culture without interference toward married children and respecting their choice ② A family-centered American culture for couples to raise their children together		
① Preference for a spouse who has the same culture or respecting each other's culture ② Preference for Korean-speaking spouse with an American way of thinking		

지지해 주세요. 그러나 배우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나... 저희 엄마를 되게 힘들게 하시거든요. 사소한 것에 빠지고, 아빠 같은 배우자 만나서 평생 배우자 때문에 속 쓰리고 힘들 바에는 그냥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싶어요(참여자 B).

(2) 부모의 모습에서 형성된 결혼관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만들어 내는 결혼생활과 가족분위기 속에서 미래의 구체적인 결혼생활을 상상하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만들고 있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 한 순간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에 평생 묶이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① 부모를 통해 보는 결혼생활

참여자들은 미래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모님의 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미래의 결혼생활을 예측하고 있었다. 화목한 가정의 참여자인 경우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정말 저희 집은 financially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돈이 다는 아니구나! 나는 저희 집 상황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 생각해요. 물론 두 분이 소소하게 싸우긴 하지만,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행운이다. 지금 대학 와서 주위 친구들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요(참여자 A).

아빠 같은 배우자 만나서 배우자 때문에 속 쓰리고 힘들 바에는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매일 저를 사이에 두고 다투셔요. 아버지가 별로 다정하지 못하고 좋은 남편이 아니어서 '아 나는 정말 혼자 살래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애'라고 하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주변에 몇 명 있어요(참여자B).

② 사랑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참여자들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셨지만, 현재 부모님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자신도 결혼 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혼 자체에 회의감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 할 수는 없다고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중략)... 결혼 후에 상대에 대해 분명 부족한 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남편의 부족한 면도 나오고, 처음에는 남자에 대한 확신에 차서 결혼하지만 평생 그것(결혼)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것 같고.. 결혼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더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는 남자도 많다는데 결혼 후에 변하면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결혼 전에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 때는 이미 아이도 있고(참여자 C).

● 범주 3: 포기할 수 없는 자아

이제는 결혼보다는 직업(일)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결혼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결혼 자체도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하던 안하던 간섭 없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1) 독립적인 삶에 대한 욕구

참여자들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결혼을 할 수 없다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평등하고 독립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한국인과 결혼한다면 간섭이 많고 가부장적인 한국의 문화가 독립적 삶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① 평등하고 독립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소망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적 시간을 갖지 못하고 서로에게 구속되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평등한 결혼이라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냥 서로 바쁘고 필요할 때는 관여하지 않고, 둘이 선을 지키면서 자기만의 생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extra로 뭘 희생하고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시간 보장해주고, 그러면 저도 결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어요(참여자 C).

② 가부장적인 한국문화와 거리두기

참여자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의 간접사례를 통해 한국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라면 결혼도 양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에서 시대는 맨 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시'자가 붙으면 다 싫다고 '시금치'도 싫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싫으려

면 어떻게 그렇게 싫은가 싶기도 한데, 저는 한국인이랑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부장적인 문화 특히 시댁에 대한 문화를 견뎌내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 (중략)... 여기서(미국) 산다는 전제 하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결혼 후에 일어나는 일이 (여성) 개인의 삶을 망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결혼 후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참여자 D).

## (2) 희생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결혼

결혼/출산은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여성은 자신이 희생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고 희생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① 여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결혼/출산

참여자들은 결혼/출산이 근본적으로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결혼에 있어서 여자의) 손해는 엄청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이익이랑 손해를 따져서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 결혼을 생각하면 가사 일에 대한 부담, 육아에 대한 문제, 의무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참여자 D).

② 결혼/출산 후 여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담감  
연애와는 달리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지고 그로인해 주어지는 각종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연애는 일시적이지만 결혼은 의무적으로 상대를 평생 돌보고 신경 써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거부감이 드는 같아요(참여자 C).

### (3)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결혼

미국은 결혼보다는 가볍고 쉬운 동거가 흔하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거를 하다가 필요에 의해 결혼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 ① 결혼보다는 가볍고 쉬운 동거

결혼은 법적으로 책임이 크고 부담이 된다고 진술하면서 긴 인생 한 사람과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동거 기간에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임으로 결혼제도 안에서 보다 더

평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 뭐랄까 동거는 결혼 전에 한번 좀 거쳐보면 괜찮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예 결혼을 안 해도 되고요. 동거라는 것은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관계? 결혼이 법적인 것 아래에 묶여서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동거는 그냥 '같이 살자!' 하는 느낌! 서로 살다가 싫어지면 '헤어져' 그러면 그냥 그 집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고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역할을 떠나서 집에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가사노동이나 공동의 역할이 필요할 때, '그런 니가 알아서 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오래오래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행복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결국 추구하는 것은 자기 행복이니까 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서로 모르는 것을 동거를 통해 검증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B).

#### ② 결혼은 인생의 옵션

미국에서는 결혼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생의 옵션 중의 하나인 이벤트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일종의 이벤트처럼 결혼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거나 혹은 연애의 끝으로써 결혼이라는 것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인생의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나이가 됐으니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참여자 C).

저는 결혼에 대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혼이라는 과정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일까? 삶에서 결혼이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연애의 끝이 꼭 결혼이어야 할까? ... (중략)... 여기는(미국은) 결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인생의 반환점,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벤트, 옵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B).

#### (4) 결혼보다 우선되는 직업에 대한 당위성

미주 한인 여대생들은 아직 대학생이지만 미국에서 취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직업(일)은 자신들 삶의 가장 최우선이자 필수이기 때문에 주부의 삶은 당연히 거부 한다고 하였다.

##### ① 경제적 자립에 대한 자신감

미국사회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보다 취업이 쉽고 기회가 많다고 하면서 자신의 취업에 대한 확신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미국) 기회가 많거든요 노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어요 연봉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우선은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한국보단 훨씬 많고 직업도 안정적이예요(참여자 E).

내가 (돈을) 벌 것을 알기에 괜한 자신감이 생기네요 남자친구는 직업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돈을 벌면 되요...(중략)... 배우자가 백수만 아니면 되요 자기 의지가 있고 돈을 그래도 조금은 벌어야 되지만요(참여자 C).

## ② 여성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서의 일

여대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직장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계획이 아주 없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제력 등 조건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게 목표구요 애니메이션이나 children book에도 관심 있어요 제가 그런 쪽으로 빨리 자리 잡고 뭔가를 하는 것이 결혼보다 훨씬 중요해요 빨리 성장해서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계획이 있구요 앞으로 그런 제 계획에 결혼을 한다던가, 애를 키운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참여자B).

만약에 제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을 벌 것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만약에 가정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집안일) 해라! 돈은 내가 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할 거예요(참여자 A).

## ● 범주 4: 안정에 대한 욕구

결혼은 외로운 이민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주기도 하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사회적 신분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 (1) 정서적 안정으로서의 결혼

참여자들이 느끼는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정서적 안정'이었다.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정서적 안정감은 외로운 이민생활에서 여성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 ① 결혼은 외로운 이민생활의 정서적 보호막

참여자들은 결혼으로 인해 여성 개인에게 약간의 손해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외로운 이민생활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이 생긴다는 것이 결혼의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결혼은 당연히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일단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남편하고 나 이렇게 두 명만 있고 애가 없더라도 가정은 일단 protection 같은 느낌도 있고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타국에 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참여자 A).

제가 요즘에 워낙 여성의 인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결혼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결혼의 단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느끼는 안정감은 가정 외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정신적 안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참여자 D).

### (2) 신분안정의 수단으로서의 결혼

이민자들은 미국사회에서 시민권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중요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 획득은 취업과 결혼의 선행 조건이자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의도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 ①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필요 · 충분조건으로써의 시민권

미국에서 '시민권'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사회복지나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본자격이라고 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하여야 취업이 쉬워지고, 취업을 해야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반대로 주변에서는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랑 없이 신분안정의 수단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술하였다.

저는 출산에 대해 생각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이 있고, 시민권을 따서 미국 society에 들어가고 그렇게 안정적이게 살수 있다면, 결혼도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Korean-American 2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자기 job이 있고, 그 후 남편을 찾고 애를 낳고, 남편도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래요. 저도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안정되게 애를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진짜 직장이라 사회적 위치가 그런 신분에 따라서 돈을 버는 액수부터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애들의 교육환경이나 가정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내나 남편이 시민권 있는 경우 결혼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결혼을 약속하거나 그렇게 사랑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인사회도 그렇고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많이 있어요(참여자 A).

● 범주 5: 양국문화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부부중심의 가족 친화적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성적으로 지나치게 개방되어 있거나 이혼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이중적인 미국문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양국문화의 장점을 가진 두 나라 문화의 융합된 배우자상을 이상형으로 삼았다.

(1) 이중적 미국문화에 대한 두려움

미국문화는 성적으로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있고, 겉으로는 개인주의적이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양성평등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① 성적으로 개방되고 이혼이 쉬운 미국문화에 대한 두려움

미국에서는 약물남용과 지나치게 개방적 성문화 때문에 연애하기도 겁나고, 결혼도, 양육도 망설여진다고 하였다. 특히 이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이 이혼을 해서 남편이 없어지는 것은 괜찮으나 자신의 아이의 아빠가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결혼이 망설여진다고 진술하였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친구들(을) 보면 약도 많이 하고 성관계도 많이 하고, 탈선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얼마나 어린 시절에 약(마약)이라든지, 나쁜 길이 너무 많이 펼쳐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관계 그런 것이 너무 빨리 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참여자 A).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것이 미국은 애가 있어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개네들은(미국인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서, 나의 삶에 내 아이도 있지만, 지금 가치관이 조금만 안 맞고 그러면 그냥 갈라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진짜 헤어지고 싶어도 애 때문에 못한다 하시거든요 쉽게 이혼을 한다면, 저의 선택에 의해서 제 아이의 아빠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내 남편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생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참여자 C).

② 어디든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일반적으로 개인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미국문화에서도 출신과 인종에 따라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 존재하며, 여성의 이중노동이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제가 딱 느낀 것은 한국인이라고 이렇고, 미국인이라고 저런 것은 아니구나. 미국인(백인)이 겉으로는 개방적이고 뭐 여성을

존중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진짜 가부장적이에요 겉으로만 없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게 해석하면 남성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긴 하겠죠(참여자 D).

(2) 부부중심의 가족친화적 미국 문화

미국문화의 좋은 점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하기 좋은 가족중심적 문화와 결혼한 자식에게는 부모들이 자식의 선택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간섭이 없어 부부중심의 생활이 가능한 문화였다.

① 결혼한 자식에게 간섭이 없고 선택을 존중하는 미국의 결혼문화

참여자들은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녀를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키우는 문화이며, 결혼 후에도 자식에게 간섭하지 않고 결혼한 자식을 성인으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어서 시대과의 갈등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국 가정에서 시대과의 갈등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커서 뭔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보내고 나면, 굳이 그제 연을 끊는 다기 보다는 그 가정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터치를 안 해요 부부중심의 생활이 가능하죠(참여자 E).

미국은 이혼하거나 별거하면 또 그렇게 살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꽤 잘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을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아예 독립적으로 키워서 그런가? 그래서 애들이 부모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일찍이 독립적으로 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에 익숙하죠(참여자 C).

②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하기 좋은 가족중심적 미국문화

미국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유희문화도 없고 남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족중심적인 생활이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도 기업이 적극적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미국은 진짜 가정적이고 가족중심의 문화이거든요 남자들도 육아에 대해 진짜 적극적이고 잘 도와줘요 유치원에 가서 아이 pick up할 때 보면 남자들이 꽤 많이 데리러와요. 또 여기는 술집이나 카페 이런 곳도 거의 없고 밤 6시 이후에는 할 것이 없어요 가족이 없으면 진짜 할 것이 없어요(참여자 A).

(육아휴직과 관련되어) 그제 막 한국이랑 다르게 내가 육아휴직한 사람의 일을 떠안는 다기 보다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인턴할 때 관찰해 보면) 그 직원이 출산휴가 등을 갔었을

때 특히 저희 회사는 일을 분배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고 그 매니저 아래에 일하는 사람들이 associate 되어있기 때문에 출산후가 등의 관리는 매니저 일이고 매니저가 그 일을 분배하는 것이라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참여자 D).

(3) 두 나라 문화가 융합된 배우자상

참여자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배우자감으로 선호하나 한국인들의 가족중심적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의 장점이 융합된 한국인 이민 1.5세 정도의 남자가 배우자로 적합하다 하였다.

① 동일한 문화를 가지거나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배우자 선호

참여자들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외국인 배우자와는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국사회이지만 가급적 같은 문화권인 한국인을 선호하였다. 여의치 않다면 미국인일지라도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는 배우자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한국이 약간 가부장적이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랑 상황이 비슷한 생각과 문화를 가진 한국 사람이 더 좋아요. 제 또래 애들 중에서 외국인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다 외국인은 아니라고(참여자A).

한국인은 통하는 그 무언가는 있어요. 깊은 대화를 할 때 가치관이 달라서 말은 안 통한 적은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진 않잖아요? 나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 오래 살았어도 언어적으로 뭐가 막 정식으로 표현은 안 되잖아요? 제가 일도 하고, 회사(인턴)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100%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늘 90퍼센트만 말하는 느낌? 그래서 그게 한국인 배우자의 장점인거 같아요(참여자 D).

② 미국적 사고의 한국말 통하는 배우자 선호

참여자들은 언어를 포함하여 같은 문화에 대한 공통점이 있거나 가부장적이지 않고 미국적 매너에 익숙한 교포 1.5세 정도의 한국남자나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인을 배우자감으로 선호하였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미국인이랑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바로 온 사람보다는 약간 저랑 비슷

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가부장적이지 않고, 이쪽(미국) 매너에 익숙해 있고,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포 1.5세에서 2세의 한국남자나 혹은 한국문화를 존중해주는 미국사람까지 생각을 해 봤어요(참여자 E).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해요(참여자 D).

현상학적 글쓰기

미국 이민자 자녀로서 미국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갈 원하는 한인 여대생은 부모님의 결혼생활은 미래의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직도 사랑으로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사랑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 된다. 여대생들은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머니로부터, 배우자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에 투영하면서 결혼 이미지를 만든다. 여대생에게는 결혼이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여성의 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외로운 이민생활에서 결혼은 정서적 안정과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된다. 또한 결혼은 사회적 신분안정을 위한 시민권 획득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보다는 미국사회가 취업과 관련되어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과 경제적 자립에 대해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 자신의 직업 외에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가볍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동거를 선호한다. 결혼은 동거를 하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벤트일 뿐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부부 중심의 가정이다. 배우자로 언어의 장벽이 없고 문화가 비슷한 한국남자가 좋지만 한국 배우자의 가부장적 사고와 간섭 많은 시댁문화 때문에 꺼리게 되고, 부부중심의 가족친화적 문화와 부부의 공동육아가 당연한 사회 분위기가 있는 미국문화가 좋지만 약물남용, 개방적인 성문화,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미국문화 때문에 미국인과의 결혼이 두렵다. 따라서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은 두 문화의 좋은 점을 가진 한국인이면서 미국적 매너에 익숙한 이민자 1.5세쯤의 Korean-American이 좋다고 생각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 속에서 한국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정치제도 안에서 생활하는 미주 한인 여대생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미를 탐색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도출된 5개의 최종 범주는 ‘자아성장으로써의 결혼’, ‘인생의 거울: 부모님’, ‘포기할 수

없는 자아’, ‘안정에 대한 욕구’, ‘양국문화에 대한 양가감정’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해법과 연결된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 중에서 ‘자아성장으로써의 결혼’과 ‘안정에 대한 욕구’는 결혼의 장점에 대해 진술한 자료에서 도출된 범주들이다. 참여자들은 외로운 이민생활에서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자신을 성숙시켰으며, 동생들을 돌보며 가족 간의 희생을 배우게 되었고, 부모님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여성에게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가정이 주는 정서적 안정은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정서적 보상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결혼을 통하여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가정을 이루어 정서적 안정을 가지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화목한 가정과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0,21]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이 많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민주적이며 친밀하게 인지할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20]. 대학생 시절은 성인기로의 전환 발달기이며,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주관적 가치관이 활발하게 형성될 뿐 아니라 결혼에 대한 욕구 또한 매우 구체화되는 예비 부모의 준비기이다[22]. 도출된 두 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도출된 또 다른 범주는 ‘인생의 거울: 부모님’이다.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 아내로서의 모습, 엄마로서의 모습을 상상하고,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현실의 롤 모델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남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신의 미래의 남편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부모가 만들어 가는 부부생활과 가족 분위기를 통해 자신의 미래 결혼생활을 예측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일상에서 직접 모습을 보면서 결혼 이미지를 만들어 가며, 이는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에 깊게 관여한다[23]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로서 자녀들이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결혼 이미지가 부정적이었고[22],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이고 민주적일수록 자녀의 결혼과 출산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24], 부모의 이혼과 갈등을 경험한 자녀일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이혼을 쉽게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25]. 부정적인 결혼 이미지는 결혼시기를 연기하게 되고[20], 출산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26].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가 결혼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눈에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해 보여야 할 것이다. 부부의 모습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찰

해 온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부부관계 개선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대학생에게 ‘결혼은 할 만한 것’, ‘결혼은 개인의 행복으로서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할 것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저출산 해법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대상으로 가임연령의 여성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중·장년층 부부로 확대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네 번째 도출된 범주로는 ‘포기할 수 없는 자아’이다. 참여자들은 결혼 때문에 직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면서 자신들의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오히려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이 가장 우선이라고 진술하였다. 결혼에 긍정적인 참여자들조차 결혼이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직업을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신이 좀 더 노력하고 희생하는 일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결혼과 출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0대에서 40대 구간에서 크게 떨어져 M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9]. 첫째 아이를 출산한 기혼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 둔다[9]. 직장을 결혼/출산/육아로 그만두게 될 것을 염려한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고, 그 이후 비혼에 이르게 되어 저출산이 일어나는 연속적인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2,9].

반면 저출산의 늪에서 반등한 프랑스의 경우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일-가정 병행 지원 정책이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부모의 직접 양육을 강조하여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27], 양육 이후 직장으로서의 복귀 보장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폈다[10,28]. 그 결과 2016년 유럽 최고 수준인 합계출산율 2.10명 수준을 기록하였다[28]. 과거에는 직업이 없거나 교육수준이 낮아서 양질의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여성이 임금노동 보다는 자녀양육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28], 최근에는 고등교육 여성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9]. 즉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반 상승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일수록 고용률이 증가하고 출산이후 경제활동에 복귀가 쉬우며,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때문에 출산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8]. 유럽에서 모범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 프랑스·영국·독일의 공통점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50% 중반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27]. 개인의 일(직업)이 중요하게 된 것은 근대의 핵가족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이자 현재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4].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세상에서 여성에게 출산은 또 다른 위험요인에 불과할 뿐 더이상 신성한 여성으로서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4].

따라서 여성이 30~40대에 마음 놓고 출산과 양육에 집중한 후에는 언제든지 자신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복귀한 후에는 일-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업,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범주는 ‘양국문화에 대한 양가감정’이다. 참여자들은 미국의 개방적인 성문화, 약물남용, 쉬운 이혼에 대한 생각으로 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인들은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아 배우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시댁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미국이라면 몰라도 혹시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가족중심적 가부장적 사고와 남성중심적 사회분위기의 대대적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싱가포르처럼 아시아 유교 문화의 특수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제도에 따른 문화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이유이다[30]. 해방 후 압축성장의 사회변화를 겪으면서도 가치관에는 봉건적,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여대생들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결혼문화에 대해 비혼, 비출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저항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6].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려면 육아노동과 가사노동에 관련 있는 가족 내 노인, 아동, 청소년, 남편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고[9], 범국가적 양성평등 문화와 부부 중심의 친가족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역이 넓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주(state)마다 다른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미국 전체 한인 여대생들의 견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도시이면서 명문대학이 모여 있는 보스톤이라는 지역 특성상 참여자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미래 직업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고 있어 모든 미주 한인 여대생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미주 한인 여대생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의미의 공통적 범주를 찾아내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참여자 미국 거주 한인 여대생 5명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결과, 239개의 의미있는 진술, 49개의 의미형성, 22개의 주제, 12개의 주제묶음이 도출되었으며, 최종적 범주는 ‘자아성장으로써의 결혼’, ‘인생의 거울: 부모님’, ‘포

기할 수 없는 자아’, ‘안정에 대한 욕구’, ‘양국문화에 대한 양가감정’이 도출되었다. 미국 거주 한인 여대생들은 부모의 모습에서 구체적 미래의 결혼생활을 예측하고 배우자상을 그리고 있었다. 결혼에 대해 자아성장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면에서 결혼의 장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결혼제도 안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각종 희생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미주 한인 여대생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장 중요 시 여겼고,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한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여대생들은 양국 문화의 장단점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출산의 주역인 여대생이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좋은 롤모델 형성, 여대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일-가정 병행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전폭적 지원, 각종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국사회 같은 가족친화적 환경조성과 가치관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Population trend survey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20 [Cited 2020 November 5].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2. Lee SS. 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Research Report.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December. Report No. : 2015-31.
3. Shin YJ. Long-term trends of cohort total fertility rate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20;40(3): 534-562. <http://dx.doi.org/10.15709/hswr.2020.40.3.534>
4. Yim GG. Personalization trends and educational problems in the low fertility age: focused on Ulrich Beck's personalization perspectiv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2019;24(1): 7-57. <http://doi.org/10.26894/kdge.2019.24.1.37>
5. Bae E. Are Women responsible for the low fertility?: for the feminist appropriation of the discourses on low fertility. Gender and Culture. 2010;3(2):37-75.
6. Do M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1;16(4):163-178.
7. Lee SK. The meaning of marriage, giving birth, and parenting in collage of women. Archives of Seoul Nursing Research. 2019;32:109-121.
8. Shin SS. A low birth rate budget of 40 trillion won, but a

- couple in their 30s “paid parental leave without money”. Korea ChoogAng Daily. 2020 November 25. Sect. 14. Available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929343>
9. Kim SJ. A critical study on the population policy of Korea in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019;22(2):143-158. <http://dx.doi.org/10.21189/JKUGS.22.2.11>
  10. Chung S. A critical review on paradigm shift i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Journal of Public Society*. 2018;8(2):36-64. <http://doi.org/10.21286/jps.2018.05.8.2.36>
  11. Park C. Female college student’s type of subjective perception on marriage, childbirth, child care.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2018;59:265-295. <http://doi.org/10.47042/ACSW.2018.05.59.265>
  12. Chung SH.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its problem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015;38(2):113-134.
  13. Shin KA. Issues and dilemmas of population policy in Korea: gender policy without gender perspective. *Issues in Feminism*. 2010;10(1):89-122.
  14. Berry J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1997;46(1):5-34.
  15. Lee SS, Choi HJ. Population dynamics and policy response in U.S. *Health and Welfare Forum*. 2013;3(197):93-104.
  16.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otal fertility rate of OECD countries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20 [Cited 2020 October 6].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7\\_OECD](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7_OECD).
  17. Kim BH, Kim KJ, Park IS, Lee KJ, Kim JK, Hong JJ, et al.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9;29(6):1208-1220.
  18.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s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8-71.
  19. Guba EG, Lincoln YS.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2. p. 22-98.
  20. Choi SY, Chang JK.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as perceived by adult child on perspective of marriage: the mediation effect of recognize gender ro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16;54:181-95. <http://doi.org/10.6115/fer.2016.015>
  21. Kim JY, Kim YC. A study on the effect of marriage values and willingness to give birth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2):1025-1039.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2.090>
  22. Kim YL. A study on the marriage value and its' associated variables for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based on the family ecological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ungang University; 2009. 159 p.
  23. Won AR, Park JY. Impact of family strengths,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views on marriage on unmarried couples' marriage intention. *Family and Family Therapy*. 2016;24(1):145-166. <http://doi.org/10.21479/kaft.2016.24.1.145>
  24. Lee SD, Hong GO. A survey on collegians' attitude on marriage and fertility in Gyeongju. *The Journal of Gyeongju Research*. 2010;19(2):135-161.
  25. Chung MJ, Lee JW.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variables on marital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3;41(3):147-164.
  26. Park J, Shin N, Kim Y, Kang S, Kim S, Ahn W. Influence of recognition on low fertility and views of marriage on childbirth will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9;23(4):261-268. <http://doi.org/10.21896/jksmch.2019.23.4.261>
  27. Yi MS. Resolved factors to low fertility in Fra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1):558-567.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1.558>
  28. Kim MJ. Gender implication of French family policy for increasing fertility rate.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2018;36(1):117-150.
  29. Ahn M. 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002;15(4):667-682. <http://doi.org/10.1007/s001480100078>
  30. Ahn KH, Kim HY, Cho GJ, Hong SC, Oh MJ, Kim HJ. Governmental policies for overcoming low birth rate by coun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8;22(3):131-133. <https://doi.org/10.21896/jksmch.2018.22.3.131>

# Meaning of Marriage & Childbirth among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Lee, Sun-Kyoung<sup>1)</sup> · Song, Ju-Eun<sup>2)</sup> · Kim, Tiffany<sup>3)</sup>

1) Associate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Korea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3) Assistant Clinical Professor, School of Nursing, Northeastern University, Boston, US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meaning of marriage and childbirth among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influenced both by Korean culture at home and American culture in social contexts.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d phenomenological approach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method to derive the meaning of marriage and childbirth. **Results:** From the data, 239 meaningful statements, 49 meaning formations, 22 themes, and 12 theme clusters were extracted. Additionally, five major categories emerged. These categories were 1) marriage as an opportunity for self-growth, 2) the mirror of life: parents, 3) oneself who cannot give up, 4) a desire to live a stable life, and 5) ambivalence on the culture of two countries. **Conclusion:** To improve the positive meaning of marriage and childbirth, a positive role model such as a happy married life of parents at home must be ensured. Finally,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the balance between home and work, as well as various policies which support women's pregnancy and childbirth.

**Keywords :** Female; Korean Americans; Marriage; Parturition; Qualitative research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2018 research fund for overseas study year supported by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Ju-Eun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164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16499, Republic of Korea

Tel: 82-31-219-7018 Fax: 82-31-219-7020 E-mail: songje@ajou.ac.kr